동상이견

사람들은 함께 만나고 소통하는 것을 통해 공간과 시간을 서로 공유한다. 이를테면 두 사람이 함께 보낸 공간은 각자의 공간이 아니라 ‘둘만의 장소’가, 함께 보낸 시간은 ‘둘만의 사건’이 되는 것이다. 나는 이러한 ‘둘만의 사건’과 ‘둘만의 장소’를 그래픽 디자인 작업으로서 표현하고자 한다.

둘만의 장소와 둘만의 사건은 하나의 장소와 사건으로 여겨지지만, 사실은 각 개인의 공간과 시간이 하나로 합쳐진 것이다. 그리고 이 사실은 서로가 향하는 시선에 주목할 때 잘 느낄 수 있다. 예를 들어 우리는 같은 공간에서 서로 마주 보고 대화를 하지만, 각자의 시선은 정 반대를 향하고 있다. 즉 서로는 각각 다른 두 지점에서 정 반대의 풍경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다. ‘포옹’이라는 하나의 사건도 그들의 시선에 주목해서 본다면 한 지점에서 서로 반대 방향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다.

나는 이처럼 같은 공간의 두 지점에서 서로 마주 보는 각자의 시선과 포옹이라는 사건 속에서의 각자의 시선을 합쳐 네 가지의 시점의 이미지를 촬영하고, 이를 하나의 공간으로 재 형성하여 하나의 시점으로 볼 때의 풍경의 이미지와는 전혀 다르게 느껴지는 새로운 공간을 그래픽이미지로 담아내었다. 그리고 이렇게 네 개의 시선이 혼합되어 있는 그래픽 이미지는 두 개인의 시공간이 하나로 합쳐져 둘만의 시공간으로 형성되는 것을 그대로 드러내고자 했다.